

문학교과서 수록 「독짓는 늙은이」의 개작 양상 연구

신희교(우석대)

〈목 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1. 서론

소설가는 자기가 쓴 소설을 두고 개작을 하지 않거나 하거나 한다. 자기가 쓴 소설을 개작하지 않는다고 밝힌 작가¹⁾와 달리, 황순원은 자기가 쓴 소설을 개작하였다. 한 작가의 소설 개작은, 단지 문장 몇 개 정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신념이나 이념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기도 하다.²⁾ 황순원의 경우, 그의 소설 개작은 6·25를 전후로 하여 이루어졌고 또 그 개작된 것이 그의 이념적 좌표의 이동을 보여준다는 점

1) 조정래 같은 작가가 그러하다. 그는 2014.6.14 「태백산맥」을 화제로 한 와이티엔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작품이든 개정판은 없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2) 본론에서, 이본을 대조하고 표기의 차이를 해석하였으나 그 표기들은 각각 전체 텍스트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다.

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황순원의 『독짓는 늙은이』는 다른 소설들이라면 비교적 뚜렷이 나타났을 이념적 좌표의 이동에 따른 개작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는 『독짓는 늙은이』의 개작에 대한 연구를 아예 하지 않거나 소홀히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보인다.⁴⁾

소설이 이데올로기의 매체로서의 언어 집적물인 바에야 『독짓는 늙은이』 또한 개작 양상 검토 시 황순원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측면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독짓는 늙은이』의 개작 양상을 검토함에 있어 본고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두 7개의 판본을 선정하고 이 판본에 실린 텍스트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7개의 판본은 다음과 같다. ① 『문예』 제2권 제4호, 문예사, 1950. ② 『기러기』, 명세당, 1951.⁵⁾ ③ 계몽록 편, 『단편사인선집』, 우생출판사, 1955. ④ 『황순원 전집』, 제1권, 창우사, 1964. ⑤ 『황순원문학전집』, 삼중당, 1973. ⑥ 『늙/기러기-황순원전집1』, 문학과 지성사, 1980. ⑦ 김윤식, 김종철, 정호웅, 안혁, 김효정, 『고등학교 문학 I』, 천재교육, 2012.⁶⁾

3) 이와 관련 박용규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주목된다. “황순원 초기 소설의 개작에서는 다른 시기에 비해 민감한 현실 문제와 관련된 대목의 삭제와 수정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1949년 말 ‘보도연맹’ 가입이라는 개인사적 체험이나,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반공이데올로기가 점차 광포성을 더해가는 역사적 상황 등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만큼 개작의 동인 중에서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다.” 박용규, 『황순원 소설의 개작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국문초록.

4) 이 점이, 『독짓는 늙은이』에 대한 개작 연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한국현대소설총서 8』, 태영사, 1985 영인본을 텍스트로 함.

6) 문학교과서가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잡게 된 때는 4차 교육과정기이다. 이 때 『독짓는 늙은이』는 구인환, 『현대문학』, 금성교과서, 1985에 수록되었다. 이어 5차 교육과정기 때, 김홍규, 『문학』, 한샘출판사, 1990과 김용직 외, 『문학』, 학습개발사, 1990. 7차 교육과정기 때, 김창원 외, 『문학』 상, 민중서림, 2003과 홍신선 외, 『문학』 상, 천재교육, 2003. 2009 개정 교육과정기 때, 김윤식 외, 『문학 I』, 천재 교육, 2011과 고희진 외 『문학 I』, 천재문화, 2001에서 수록되었다. (황현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황순원 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참조) 문학교과서에 모두 7차례 수록된 『독짓는 늙은이』의 경우, 구인환 외의 『현대문학』과 김윤식 외 『문학 I』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접속 부사 뒤에도 일일이 쉼표를 찍는 등 너무 많은 쉼표를 사용한 전자에 비해 후자가 최소한의 쉼표만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교과서 본들을 그 자체 비교하는 것은 이차적 작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 교과서의 첫 텍스트는 3차 전집본 이후에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는 문학교과서 수록 텍스트가 그 이전의 (교과서 외) 텍스트들로부터 어떻게 개작되어져 왔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한편 편찬(編纂)된 문학 교과서의 모든 텍스트들은 해당시기의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며 일종 정전화(正典化) 경향을 띠고 있다. 이

본고는 ①을 최초본, ②를 단행본, ③을 선집본, ④에서 ⑥을 각각 1차 전집본, 2차 전집본, 3차 전집본, ⑦을 교과서본이라 하여 비교해 보았다. 이 중 3차 전집본 같은 것은 단행본을 재수록하였으므로 비교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단행본과 달리 이 경우에도 개작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단행본이냐의 여부보다는 해당 텍스트가 수록된 책의 간기를 중시하면서 개작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대상이 된 7개의 텍스트 모두, 말미에 1944년 가을에 쓴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한편 황순원의 사망 이후에 출판된 교과서본은 이전의 3차 전집본과 두 가지 점에서 상이하다. 하나는 합성어 지양과 과생접미사 삭제(삽입) 등⁷⁾이고 다른 하나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띄어쓰기 같은 것이다. 특히 전자는 몇 군데 형태론 및 문장론 차원의 것으로 교과서본이 3차 전집본과 별다르지 않음을 말한다. 이 점, 교과서본은 주로 띄어쓰기의 변화에서 보듯 교과서 편찬자의 의도 반영이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 수준에서 최소한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텍스트의 비교 검토 시 텍스트 이론인 초점화 이론⁸⁾을 참고하였다.

2. 본론

본론에서 언급된 최초본부터 교과서본까지의 텍스트들은 그것 자체로 독립된 것이면서 상호텍스트성의 관계에 있다. 그런가 하면 각 텍스트들은 또한 그 자체로 무수한 의미들을 생산한다. 각 텍스트들의 의미는 항상 불확정적인 것이다. 항상 불확정적인 의미를 생산하는 텍스트들 또한 그 자체로 완성 상

에 필자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김윤식 외 4인의 문학교과서 수록 텍스트를 가장 대표적인 정전으로 보고 이 텍스트가 이전의 (교과서 외) 텍스트들로부터 어떻게 개작되어져 왔는가를 검토하려 하였다. 교과서 본들끼리의 자체 비교는 당연히 후속 작업이 될 것이다.

- 7) 모두 10곳으로, ‘언제부터인가 -> 언제부터인지, 어젯저녁 -> 어제저녁, 오늘은 -> 오늘도, 내이자 -> 내자, 시간 -> 시간만, 죄이고 -> 죄고, 쥐어주며 -> 쥐여 주며, 저고릿고름 -> 저고리 고름, 누구이라는 -> 누구라는, 예삿사람 -> 예사 사람’이 그것이다.
- 8) 소설은 이야기와 텍스트 및 서술의 수준에서 분석될 수 있다. 초점화 이론은 텍스트 수준의 것(S. 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1999)의 제5장 참조)으로, 시점 이론으로서의 비교적 정지한 것으로 본고의 텍스트 분석시 다소 유용하였다.

태에 있지 않다. 텍스트들은 작가의 개작의지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지닌다.⁹⁾ 이 점에서 비교된 텍스트들은 그 어느 것이나 불완전하다고 해야 한다. 최초본이 교과서본보다 더 우월한 것도, 교과서본이 최초본보다 더 우월한 것도 아니다. 두 텍스트만을 놓고 볼 때 그것들은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과정적 텍스트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여러 텍스트들에 대한 본론에서의 우열 판단 또한 일시적인 비평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해 두지 않을 수 없다.

개작의 검토는 교과서본을 기준으로 최초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개작되어져 왔는가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이 판본들의 중간본들도 모두 검토하려 하였다. 검토된 중간본들은 특히 해석의 자리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예문 제시는 최초본과 교과서본을 주로 하였는데 이는 중간본들을 일일이 제시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¹⁰⁾

『독짓는 늙은이』는 독을 만드는 일에 한평생을 바쳐온 송 영감이, 바람난 아내의 가출과 병고 및 생활의 파탄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작업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자, 단 하나의 혈육인 어린 아들을 남에게 맡기고 독가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¹¹⁾ 한편 비교 분석을 위해 텍스트들에 공통된 이야기를 송 영감을 중심으로 하고 발단에서 결말까지의 구성에 따라 제시해 보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송 영감이, 아내와 젊은 조수의 도망에 배신감을 느끼다. ② 송 영감이 생계를 위해 독 짓기에 안간힘을 다하지만 쓰러지고 말다. ③ 송 영감이, 당손이를 좋은 자리에 보내자는 앵두나뭇집 할머니의 이야기에 화를 내다. ④ 송 영감이, 자신의 독이 튀는 소리를 듣고 쓰러지다. ⑤ 송 영감이 당손이를 떠나보내고 가마 속에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다.¹²⁾

9) 교과서본 또한 소리와 의미 및 문법 요소의 변화라는 언어 역사성의 측면에서 볼 때 특정 시간 안에 갇힌 텍스트이다.

10) 중간본들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만 면수를 표시함.

11) 권영민 편,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1100면 참조. 이 책에서 송 영감은 “독가마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기술하였다. 이는 오류이다.

12) 김윤식 외 11인, 『고등학교 문학 I 자습서』, 천재교육, 2013.11.1, 91면 참조. 본고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 같은 오단 구성을 참조하였으나, 『독짓는 늙은이』의 구성 분석으로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연속적 문학관의 관점에서 볼 때 「독짓는 늙은이」는 패배주의적 인생을 제시한 것 이상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기 자식을 타인의 수양 아들로 보내어 자신의 혈통을 계승케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마는 인생을 제시한 이야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무튼 모든 텍스트들에 공통되는 이 같은 줄거리와 구성을 바탕으로 한 「독짓는 늙은이」가 어떠한 측면에서 개작¹³⁾이 되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1. 성격적 측면

- ① 아까 잠들때보다 더 머리가 무겁고 언짢다. 애가 종시 쿨적쿨적 울기 시작했다. 오, 오, 하며 송영감은 잠꼬대 속에서처럼 애를 끌어안는다. 자기의 더운 몸에 별로 애의 몸이 차다. 벌써부터 이렇게 얼구어서 될 말이나고, 송영감은 더 바짝 애를 껴안는다. 그리고 쿨적이는 이제 일곱 살 난 애를 그렇게 안고 있는 동안, **송영감은 다시 자기보다도 이 어린것을 두고 도망간 아내가 새롭게 분하였다.** 아내와 함께 여드름 많던 조수가 떠올랐다. 그러자 이 아들같은 조수에게 동배의 사내와 사내가 느끼는 어떤 적수감이 불길처럼 송영감의 괴로운 몸을 휩쌌다.(13)¹⁴⁾

-> 송 영감은 잠들기 전보다 더 머리가 무겁고 언짢았다. 애가 종내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오, 오, 하며 송 영감은 잠꼬대 속에서처럼 애를 끌어안았다. 자기의 더운 몸에 별나게 애의 몸이 차다. 벌써부터 이렇게 얼리어서 될 말이나고, 송 영감은 더 바짝 애를 껴안았다. 그리고 훌쩍이는 이제 일곱 살 난 애를 그렇게 안고 있는 동안 **송 영감은 다시 이 어린것을 두고 도망간 아내가 새롭게 쾌선했다.** 아내와 함께 여드름 많던 조수가 떠올랐다. 그러자 그 아들 같은 조수에게 동년배의 사내가 느끼는 어떤 적수감이 불길처럼 송영감의 괴로운 몸을 휩쌌다.(89-90)¹⁵⁾

13) 개작은 '작품이나 원고 따위를 고쳐 다시 지음. 또는 그렇게 한 작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단락 이하의 단위로 할 단어 및 문장의 '변개(變改)'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14) 『문예』 제2권 제4호, 문예사, 1950.4.1. 이하 본문에서의 텍스트는 면수만 표시.

15) 김윤식, 김종철, 정호웅, 안혁, 김효정, 『고등학교 문학 I』, 천재교육, 2012.3.1. 이하 본문에서의 텍스트는 면수만 표시.

발단의 ㉠에 이어지는 ㉢¹⁶⁾ 최초본과 교과서본의 차이를 보여준다. 일단 예문만을 두고 말할 때, 이 두 본 사이에 있는 선집본은, 최초본에 비해 과거 시제를 관찰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문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가장 큰 차이점은 주인공 송 영감의 심리 표현에 있다. 즉 “어린것을 두고 도망간 아내”에 대해 송 영감이 보인 반응을 두고 최초본은 ‘분함’으로 교과서본은 ‘괘씸함’으로 서술하였다. ‘괘씸함’은 단행본과 선집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1~3차의 전집본에서는 나타나 있다.

‘분함’과 ‘괘씸함’은 일단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 전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 화나고 원통함을, 후자는 남에게 예절이나 신의에 어긋난 것을 당하여 분하고 밉살스러움이라는 뜻을 갖기 때문이다.¹⁷⁾ 그러나 문맥상 ‘분함’은 그의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것보다는 어린것을 버리고 갔다는 데 따른 것으로 복합적인 감정인 반면 ‘괘씸함’은 그의 아내가 단지 어린 것을 버리고 갔다는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감정이다. 이는 화자 초점화자의 내포독자(독자)에 대한 정서 전달력이 점잖은 느낌을 주는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큰 것과는 무관치 않다. 이처럼 ㉢는 1차 전집본 이후 교과서본까지 송 영감의, 아내에 대한 심리를 단순화 또는 예각화해 놓고 있다.¹⁸⁾

㉠ **그렇게 애를 내다보던** 송영감은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독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14)

-> **밖을 내다보던** 송 영감은 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독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 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90)

전개에 속한 ㉠는 송 영감의 아들이, 저녁만 되면 남쪽 장길을 향하여 쪼그

16) 이하 ㉠~㉢는 「독짓는 늙은이」의 진행에 따른 단락 표시임.

17) 이하 본문에서 단어의 의미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09_new/) 참조.

18) ‘괘씸함’이라는 송 영감의 심리 표현 혹은 성격 형상은 「독짓는 늙은이」가 일단 가족 해체 문제를 중시한 작품이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리고 앉아 혹시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가지고 돌아오지
나 앓을까하여 기다리는 장면에 이어지는 단락이다. 해당 장면은 아들의 어머니
에 대한 기다림이 특히 저녁 그늘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저녁
은 비록 어머니가 부재한 시각이지만, 어머니가 늘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
각이었다고 함으로써 매우 짧지만 그 기다림이 매우 안타까운 것이라는 의미
를 띠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장면에 이어지는 ㉑는 송 영감과 아들의 관계 변화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최초본과 단행본(239)19)의 “그렇게 애를 내다
보던” 및 선집본(141)의 “그렇게 내다보던”에 비하면 1~3차 전집본과 교과서
본의 “밖을 내다보던”은 송 영감의, 아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친애적 언
술인 ‘그렇게’가 삭제됨으로써 아들에의 염려가 반감되어 있다.

- ㉑ 다음에 송영감이 정신을 들었을때는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어 깨우
고 있었다. 울먹울먹하던 애는 깨나는 아버지를 보자 그제야 안심된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거냐고 하니까, 애가,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했다. 송 영감이 **저도모를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 해 오라드냐고 밥그릇을 밀어 놓자, 애가 쿨적쿨적 울기 시작했
다. 송영감은 아침에 어제저녁 밥 남은 것을 조금씩 먹는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는 아직 저녁을 못 먹었을
는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루 끌어다 한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 있으니 먹으라고 하는것이었으나, 실상은 자신이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군 해 줌처럼 밥을 넘길수가
없었다.(14)

->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어 깨워서였
다. 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거냐고 하니까 애가,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 해 오라
드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19) 『기러기』 영인본, 이하 최초본과 교과서본 사이에 있는 중간본들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면수 표시.

어제의 저녁 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는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 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에서 치밀어 올라오곤 해, 줌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90-91)

㉑에 이어지는 ㉒에서 최초본은 교과서본에 오면 띄어쓰기, 쉼표의 삭제 또는 삽입, 서술어 시제의 현재화 등의 면에서 변화를 보인다. 특히 최초본 다음에 발간된 단행본에서는 쉼표가 과도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㉒에서 이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희화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송 영감의 성격이 좀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아이가 “거랑질 해”온 밥에 대해 최초본은 송 영감이 ‘저도 모를 분노가 치’민 것으로 교과서본은 ‘확 분노가 치’민 것으로 각각 서술하였다.

교과서본의 서술은 1차 전집본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사실 사소한 개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바람과 가솔 및 부재가 초래하고 있는 송 영감의 심리는 단순한 분노 이상의 것, 즉 믿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그 배신감이 초래하는 응축되어진 증오심의 폭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형상화된 송 영감의 성격은 ㉑처럼 최초본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1차 전집본 이후 교과서본까지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한편 ㉓는 송 영감의 당손에 대한 친애도에 있어 최초본과 교과서본이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최초본에서 “애는 아직 저녁을 못 먹었는지 모른다”는 것과 교과서본에서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는지 모른다”는 서술상의 차이가 적지 않다. 먼저 ‘애’는, 송 영감이 아침에 밥술 이라도 든 것과 함께 ‘애는 아직 저녁조차’의 뜻을 내포하는 바 당손에 대한 애정이 열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단행본(240)에서부터 보이는 ‘애도’라는 표현은 송 영감이 아침에 밥술을 들었다는 의미의 반감을 초래하며 당손에 대한 애정 또한 ㉑처럼 약화된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교과서본은 최초본과 달리, 송 영감의 아내에 대한 증오가 강하게 표출된 것과 함께 송 영감의 당손에 대한 애정이 약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독짓는 늙은이』는 가족 관계에 있어 부부 관계를 부자 관계보다 더 중시하는 쪽으로 개작이 진행되었다.

- ① 송영감이 한번 쓰러져 있는데 방물장수 앵두나무집할머니가 와서 앓는 몸을 돌봐야 하지 않느냐고 하며 조미음 사발을 송영감 입 가까이 내려놓았다. 송영감은 어제 어린 아들에게 거랑질 해 왔다고 고함쳤던 일을 생각하며, 이 아무에게나 **친절한** 앵두나무집할머니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어제만 해도 애한테 밥이랑 그렇게 많이 쥐 보내 잘 먹었는데 또 이렇게 미음까지 쭈어 오면 어떡거느냐고 했다. 앵두나무집할머니는 그저, 어서 식기 전에 한모금 마셔보라고만 했다. 그리고 송영감이 미음을 몇모금 못마시고 사발에서 힘없이 입을 떼는 것을 보고 앵두나무집할머니는, 정말 이 영감이 **이병**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라도 미친듯, 당손이를 어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주어 버리는게 어떠냐고 했다. 송영감은 쓰러져 있던 사람같지 않게 눈을 **홉떠** 앵두나무집할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어느새 송영감의 손은 앞에 놓인 미음사발을 앵두나무집할머니에게로 떠밀치고 있었다. 그런말하러 이런 것을 가지고 왔느냐고 썩썩 눈앞에서 없어지라고, 송영감은 또 쓰러져 있던 사람같지 않게 고함쳤다. 앵두나무집할머니는 송영감의 고집을 아는 듯이 더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다.(15)

-> 송영감이 한번 쓰러져 있는데 방물장수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와서, 앓는 몸을 돌봐야 하지 않느냐고 하며, 조미음 사발을 송영감 입 가까이 내려놓았다. 송영감은 어제 어린 아들에게 거랑질 해 왔다고 소리를 쳤던 일을 생각하며, 이 아무에게나 **상냥한** 앵두나무집 할머니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어제만 해도 애한테 밥이랑 그렇게 많이 쥐 보내서 잘 먹었는데 또 이렇게 미음까지 쭈어 오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그저, 어서 식기 전에 한 모금 마셔보라고만 했다. 그리고 송영감이 미음을 몇모금 못마시고 사발에서 힘없이 입을 떼는 것을 보고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정말 이 영이 **이번 병**으로 죽으려는가 보다는 생각이라도 든 듯, 당손이를 어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주어 버리는 게 어떠냐고 했다. 송영감은 쓰러져 있던 사람 같지 않게 눈을 **홉떠**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쏘아보았다**. 그리고 어느새 송영감의 손은 앞에 놓인 미음 사발을 앵두나무집 할머니에게로 떠밀치고 있었다. 그런 말 하러 이런 것을 가져왔느냐고, 썩썩 눈앞에서 없어지라고, 송영감은 또 쓰러져 있던 사람 같지 않게 고함쳤다. 앵두나

못집 할머니는 송 영감의 고집을 아는 터라 더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다.(91-92)

위기에 속한 ①에서 최초본과 교과서본을 비교할 때 주목되는 것은 앵두나 못집 할머니의 성격에 대한 표현 부분이다. 최초본은 앵두나못집 할머니의 성격을 ‘친절한’ 것으로 교과서본은 ‘상냥한’ 것으로 표현하였다. 두 단어는 각각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한’과 ‘성질이 짹짹하고 부드러운’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전자의 ‘고분고분한’은 말이나 행동이 공손하고 부드러운이라는 의미를, 후자의 ‘짹짹하고’는 눈치가 빠르고 사근사근한이라는 의미를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 후자인 ‘사근사근한’은 다시 생김새나 성품이 상냥하고 시원스러운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2차 전집본까지는 ‘친절한’이라는 표현을 하였지만 3차 전집본(287)부터는 ‘상냥한’으로 표현이 바뀐바, 「독짓는 늬은이」 텍스트 전체를 놓고 볼 때 앵두나못집 할머니에 대한 이러한 성격 표현이 초래하는 의미 차이는 그리 확연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①의 최초본과 교과서본에서 주목되는 표현상 상이점은 송 영감의 병에 대한 표현이다. 즉 최초본은 송 영감의 병을 두고 “이병”이라 하였고 교과서본은 “이번 병”이라 하였다. 단행본과 선집본에서는 “이병” 또는 “이 병”으로 표현하였으나 3차례의 전집본에서는 “이번 병”으로 표현하였다. 송 영감의 병과 관련 “이병(이 병)”은 병의 일회성을, “이번 병”은 ‘특히 이번 병’이라는 의미도 있어 병의 전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두 표현 모두 병이 ‘치명적’인 것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 또한 앵두나못집 할머니의 성격 형상화 경우처럼 두 판본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나타낸다.

한편 송 영감의 성격 표현과 관련 ①에서 최초본은 송 영감이 앵두나못집 할머니를 ‘흡떠 쳐다본’ 것으로, 교과서본은 ‘흡떠 쏘아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 2차 전집본까지는 ‘쳐다본’ 것으로 3차 전집본은 ‘쏘아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흡뜨다’²⁰⁾는 ‘눈알을 위로 굴리고 눈시울을 위로 치뜨다’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 호응되는 서술어 표현으로는 ‘쏘아보다’보다는 일단 ‘쳐다보다’가 더 어울린다. 왜냐하면 누워 있는 작중인물이 눈을 위로 치며 날카

20)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는 ‘흡뜨다’의 북한어로 명시되어 있다.

롭게 노려본다는 것은 병자에게 다소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서 본은 회화적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작중인물의 이 같은 초점화 행위를 통하여 그 성격을 예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 또한 ㉠나 ㉡처럼 송 영감 성격의 전이가 나타난 경우라 하겠다.

㉠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가자, 송영감은 지금 밖에서 자기의 어린 아들이 어디로 업혀 가거나 하는 듯이 밖을 향해 목청껏, **당손아!, 당손아! 하고 애를 불러 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애가 뚝막 문에 나타나는 것을 이번에는 애의 얼굴을 잊지나 않으려는 듯이 한참 쳐다보다가 그만 기운이 없어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다. 애는 또 전에 없이 자기를 쳐다보는 아버지가 무서워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섰었는데 아버지가 눈을 감자 더럭 더 겁이 나는 듯 쿵적이기 시작했다.(15)

->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가자, 송 영감은 지금 밖에서 자기의 어린 아들이 어디로 업혀 가거나 하는 듯이 밖을 향해 목청껏, **당손아! 하고 애를 불러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애가 뚝막 문에 나타나는 것을 이번에는 애의 얼굴을 잊지나 않으려는 듯이 한참 쳐다보다가 그만 기운이 지쳐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다. 애는 또 전에 없이 자기를 쳐다보는 아버지가 무서워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섰다가, 아버지가 눈을 감자 더럭 더 겁이 나 훌쩍이기 시작했다.(92)

㉠에 이어지는 ㉡에서 보듯 최초본과 교과서본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송 영감의 당손에 대한 부르짖음의 강도이다. 즉 최초본은 송 영감이 매우 조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반해 교과서본은 그렇지 않다. 특히 서술상에 있어서 최초본과 교과서본 공히 호명 후에 오는 “하고 애를 불러 대기 시작했다.”와 관련, 최초본은 두 번에 걸친 호명이 교과서본은 단 일회의 호명만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한 번의 호명은 최초본 직후 단행본에서부터 교과서본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바 이 또한 송 영감에 의해 초점화 대상이 된 당손에 대한 초점화 정도가 ㉠나 ㉡처럼 약화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① 날이 갈수록 송영감은 독짓기보다 자리에 쓰러져 있는 수가 많았다. 백개가 못차니 아직 이십여개를 더 지어야 한가마 충수가 **된다**. 한가마를 채우게 **짓자, 짓자** 하고 마음만은 그러는것이었으나, 몸을 일으키다가 도로 쓰러지면 흰털 섞인 노랑수염 입을 벌리고 어깨숨을 쉬곤 했다.(15)

-> 날이 갈수록 송 영감은 독 짓기보다 자리에 쓰러져 있는 때가 많았다. 백개가 못 차니 아직 이십여 개를 더 지어야 한 가마 충수가 **되는 것이다**. 한가마를 채우게 **짓자** 하고 마음만은 급해지는 것이었으나, 몸을 일으키다가 도로 쓰러지며 흰 털 섞인 노랑수염 입을 벌리고 어깨숨을 쉬곤 했다.(92)

㉞에 이어지는 ㉠은 송 영감의 독짓기에 대한 의도나 욕망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자’라는 연결어미가 반복이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그런데 송 영감의 독짓기에 대한 심리는 최초본과 교과서본에 나타난 외적 초점화자의 초점화 대상에 대한 거리에 따른 것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즉 최초본과 교과서본에서 “된다”라는 서술어와 “되는 것이다”라는 서술어는 외적 초점화자의 초점화 대상에 대한 거리가 가깝거나 멀음을 나타낸다.

㉠은 이처럼 최초본의 경우 외적 초점화자의 주인공에 대한 밀접함을 보여 주는바 송 영감의 심리적 조급함이 내포독자 혹은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교과서본은 송 영감의 심리적 조급함이 일단은 외적 초점화자에 의해 객관화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짓는 늙은이에 대한 작가의 초점화 의식 또는 시점 의식이 좀 더 정치해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 앵두나무집할머니가 돌아간 뒤, 송영감은 지금 자기가 거랑질을 해서라도 애를 벌어들여먹겠다고 했지만, 그리고 사실 아내가 무엇보다도 자기와 같이 살다가는 거랑질을 할게 무서워 도망갔음에 틀림없지만, 자기가 이제 병만 나어 일어만 나면 아직 일등 호주라는 칭호 아래 얼마든지 독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 한가마 독만 채워 전처럼 잘만 구워지면 거기서 겨울 양식과 내년에 할 밀천까지도 나올수 있다는 희망으로, 어서 한 가마를 채우자고 다시 마음이 조급해지는것이였다.(16)

->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돌아간 뒤, 송 영감은 지금 자기가 거랑질을 해서라도 애를 끊기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그리고 사실 아내가 무엇보다도 자기와 같이 살아가는 거랑질을 할 게 무서워 도망갔음이 틀림없지만, 자기가 병만 나아 일어나는 날이면 아직 일등 호주라는 칭호 아래 얼마든지 독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 한 가마 독만 채워 전처럼 잘만 구워 내면 거기서 겨울 양식과 내년엔 할 밀천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어서 한 가마를 채우자고 다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었다.(94)

위기의 마지막 단락에 속하는 ㉓은 최초본과 교과서본 공히 송 영감의 심리적 조급함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본은 최초본과 달리 내적 독백의 일회성인 ‘짓자’에서도 알 수 있듯 작가에 의한 직접 서술에의 서사욕망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㉓ 송영감이 이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고 속을 조이고 있을 때이다. 가마 속에서 갑자기 뚜왕! 뚜왕! 하고 독 튀는 소리가 들려 나왔다. 송영감은 처음에 별떡 반쯤 일어나다가 도로 주저앉으며 이상스레 빛나는 눈을 한곳에 머물린 채 귀를 기우렸다. 송영감은 넣은 독의 위치로, 지금 것은 자기가 지은 독, 지금 것도 자기가 지은독, 하고 있었다. 이렇게 튀는 것을 거의 송영감의 것 뿐이었다. 그리고 송영감은 또 그 튀는 소리로해서 그것이 자기가 앓다가 이번에 일어나 처음에 지은 몇개의 독만이 튀지 않고 남은 것을 알며, **화부**들이 거치적거린다고 거지들을 꾸짖는 소리를 멀리 들으면서 저물어가는 저녁속에 그만 쓸어지고 말았다.(18)

-> 송 영감이,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속을 죄고 있을 때였다. 가마 속에서 갑자기 뚜왕! 뚜왕! 하고 독 튀는 소리가 울려 나왔다. 송 영감은 처음에 별떡 반쯤 일어나다가 도로 주저앉으며 이상스레 빛나는 눈을 한곳에 머물게 한 채 귀를 기울였다. 송 영감은 가마에 넣은 독의 위치로, 지금 것은 자기가 지은 독, 지금 것도 자기가 지은 독, 하고 있었다. 이렇게 튀는 것은 거의 송 영감의 것 뿐이었다. 그리고 송영감은 또 그 튀는 소리로 해서 그것이 자기가 앓다가 일어나 처음에 지은 몇 개의 독만이 튀지 않고 남은 것을 알며, **앵손이**의 거치적거린다고 거지들을 꾸짖는 소리를 멀리 들으면서 저물어가는 어둠 속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95)

절정에 속한 ㉔에서 교과서본은 최초본에 비해 주인공의 심리적 조급함이 약화 또는 정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조금만 더”를 두 번 발화한 최초본에 반해 교과서본은 이를 단 한 번 발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교과서본은 “조금만 더” 뒤에 쉼표를 삽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접화법의 간접화법화 때문이기도 하고 발화의 연속성을 함축한 것이기도 하다. 교과서본에서 보듯 일회적 발화는 2차 전집본(367)에서 발견된다.

한편 ㉔에서 주목되는 것은 먼저 초점화 대상의 명료함이다. 단행본과 2차 전집본에서도 보이지만 최초본에서의 “화부들”이라는 표현이 교과서본에서는 “웁손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다. 송 영감의 청각을 통한 인식으로 “화부들”이라고 할 때의 초점화 대상의 불명료함은 “웁손이”라는 명명을 통하여 명료하여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송 영감의 처지를 강화하려 할 때 적합한 인물 설정으로 보여진다.²¹⁾

부자 관계보다는 부부 관계로 작가의 관심이 이동, 성격적 측면에서 개작은 아내에 대한 송 영감의 성격이 좀 더 날카롭게, 그리고 아들에 대한 송 영감의 관심은 약화되는 쪽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는 부자 관계보다는 부부 관계로 작가의 관심이 이동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송 영감의 성격 표현은 외적 초점화자에 의해 객관화되고 서술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시대적 전형성의 확

21) ㉔ 그렇게 오늘해도 다 저물었다. 그러는데 한편 걸창에서 불질하던 **화부**가 걸창속을 드러다보는듯 하더니 분주히 이리로 달려오는 것이다. 송영감은 벌써 **화부**가 불질하던 걸창의 위치로서 그것이 자기의 독이 들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며, **화부**가 머라기 전에 먼저, 무너앉았느냐고 했다. **화부**는 그렇다고 하면서, 이전 독이 좀 덜 익더라도 걸불질을 그만두고 아궁지를 막기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나 송 영감은 그저 그만두라고 할때까지 그냥 불질을 하라고 했다.(18) -> 이렇게 이날해도 다 저물었다. 그러는데 한편 걸 창에서 불질하던 **웁손**이가 걸창 속을 들여다보는 듯하더니 분주히 이리로 달려오는 것이었다. 송 영감은 벌써 **웁손**이가 불질하던 걸 창 의 위치로써 그것이 자기의 독이 들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웁손**이가 머라기 전에 먼저, 무너앉았느냐고 했다. **웁손**이는 그렇다고 하면서, 이젠 독이 좀 덜 익더라도 걸불질을 그만두고 아궁이를 막아 버리자고 했다. 그러나 송 영감은 그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냥 불질을 하라고 했다.(95)

절정에 속하는 단락인 ㉔은 최초본과 교과서본이 초점화 대상에서의 차이를 보인다. 즉 최초본에서의 “화부”라는 명명은 교과서본에서 “웁손이”라는 명명으로 개작되어 있다. “화부”라는 명명은 2차 전집본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작가는 서사 전개상 “화부”를 “웁손이”로 개작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일단 그리크게 느끼지 않고 있었다. 한편 「독짓는 늙은이」는 최초본에서 초점화 대상의 혼란이 나타나 있다. 즉 외적 초점화자가 ‘송 영감’으로 명명해야 할 것을 “최노인”으로 명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초점화 대상의 착각은 단행본에서 수정되어져 있는 바 이는 작가의 오기라기보다는 문선공공의 오석이 아닌가 한다.

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독짓는 늙은이」는 사건보다는 인물 중심의 소설 임을 강화하려는 쪽으로 개작이 되었다. 그리고 역사·시대적 맥락에서는 한 가정의 기본축이라 할 부부 관계의 와해를 통해 그 시대가 부부 관계마저 안정적으로 지속해 낼 수 없었던 때임을 말해 준다.

2.2. 문법적 측면

2.2.1. 띄어쓰기

㉠ 이년! 이 백번 꺾여두 쌀 년! 앓는 남편두 남편이디만, 어린 자식을 놔두구 그래 도망을 가? 것두 아들놈 같은 **조수놈** 하구서…… 그래 지금 **한창 일꾼** 이란 말이지? 그렇다구 이년, 내가 거랑질이야 할줄 아니? 이녀언!—하는데, 옆에 누웠던 어린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였으나, 꿈속에서 **송영감**은 자기 품에 남은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것으로 보며, 오냐! 데건 네 에미가 아니다! 하고 꼭 품에 껴안는 것을, 옆에 누운 어린 아들이 그냥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러 잠꼬대에서 **송영감**을 깨워 놓는다.(12-13)

-> 이년! 이 백번 꺾에두 쌀 년! 앓는 남편두 남편이디만, 어린 자식을 놔두구 그래 도망을 가? 것두 아들놈 같은 **조수 놈**하구서…… 그래 지금 **한창 나이**란 말이지? 그렇다구 이년, 내가 아무리 늙구 병들었기루서니 거랑질이야 할 줄 아니? 이녀언! 하는데, 옆에 누웠던 어린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였으나, **송 영감**은 꿈속에서 자기 품에 안은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으로 알며, 오냐! 데건 네 에미가 아니다! 하고 꼭 품에 껴안는 것을, 옆에 누운 어린 아들이 그냥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러, 잠꼬대에서 **송 영감**을 깨워 놓았다.(89)

띄어쓰기와 관련, 「독짓는 늙은이」의 발단인 ㉠의 최초본과 교과서본은 먼저 “조수놈”과 “송영감” 대 “조수 놈”과 “송 영감”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최초본에서 ‘놈’이나 ‘영감’은 마치 접미사처럼 쓰였다. ‘영감’이 성의 뒤에 접미사처럼 붙어 “송영감”으로 표기하고 있는 경우는 단행본과 선집본을 비롯 1~3차 전집본 전체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교과서본은 ‘놈’을

의존명사로 보는 것과 함께 나이가 많아 중년이 지난 남자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인 ‘영감’을 명사로 보아 각각 띄어쓰기를 하였다.

한편 ㉔는 “아들놈”의 경우에는 최초본이나 교과서본 공히 붙여쓰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기의 아들이나 남의 아들을 낮추어 이르는 말인 ‘아들놈’이 한 단어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조수 놈’과 ‘송 영감’을 통해 띄어쓰기가 교과서 수록 시 중요사항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²⁾

한편 ㉕는 최초본이 교과서본으로 개작되었으나 띄어쓰기의 오류를 범하였다. 즉 최초본에서 선집본까지 “한창 일꾼”으로, 1~3차 전집본까지 “한창 나이”로, 교과서본에서 “한창 나이”로 표기된 부분에 관한 것이다. 최초본 등의 경우, “한창 일꾼”은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하는 일꾼이라는 정도의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는 1차 전집본 이후에 기운이 한창인 젊은 나이를 뜻하는 “한창 나이”로 개작되었다. 그러나 이는 다시 교과서본에서 “한창 나이”로 띄어쓰기 되어 표기되었다. 이 경우 “한창 나이”는 부사와 명사가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인 한 단어로, 띄어쓰기를 해서는 안 되는 단어이다. 즉 교과서본의 “한창 나이”는 띄어쓰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²³⁾

㉔ 다음날 아침, 송영감은 열에 뜬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일어나 앉아, 애더러는 흠이길 뺨손이를 부르러 보내놓고 뺨손이 올새가 바빠서 자기 손으로 흠을 이겨 틀위에 올려놓는다. 송영감의 손은 자꾸 떨리었다. 그러나 반쯤 독을 지어 올려, 안은 조모수 밖은 부채마치로 **맞 두드리며** 일변 발로는 틀을 돌리는 익은 솜씨만은 **얹아놓기** 전과 다른배 없는 듯했다. 곧 중옹 몇개가 지어졌다.(13)

-> 날이 밝자, 송 영감은 열에 뜬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일어나 앉아, 애더러는 흠이길 뺨손이를 부르러 보내놓고, 뺨손이 올새가 바빠서 자기 손으로 흠을 이겨 틀 위에 올려놓았다. 송 영감의 손은 자꾸 떨렸다. 그러나 반쯤 독을 지어 올려, 안은 조마구 밖은 부채마치로 **맞두드리며** 일변 발로는

22) 한편 ‘앵두나무집할머니’(최초본~선집본)가 ‘앵두나무집 할머니’(1차 전집본~교과서본)로 표기된 것에서 알 수 있듯 띄어쓰기의 현대적 형태는 1차 전집본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23) 이는 교과서 편찬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사료된다.

틀을 돌리는 익은 솜씨만은 알아놓기 전과 다를 바 없는 듯했다.(90)

전개 첫 단락인 ㉔에서 최초본과 교과서본은 띄어쓰기상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최초본과 단행본 및 선집본에서 발견되는 “맞 두드리며”가 1~3차 전집본과 교과서본에서는 “맞두드리며”로 표기가 되어 있다. ㉔ 장면과 관련 송 영감은 반쯤 지어 올린 독의 안은 “조모수”로 밝은 “부채마치”로 마주 두드리고 있다. 즉 그는 독의 안팎을 서로 마주 향하여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올바른 표기는, 띄어쓰기를 한 표기이다. 즉 부사인 ‘마주’와 소리가 나도록 잇따라 치거나 때리다는 뜻의 동사 ‘두드리다’는 서로 띄어 써야 한다고 본다. 교과서본의 “맞두드리며”는 1차 전집본 이래의 그 같은 표기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였거나 “맞두드리다”의 ‘맞-’을 접두사로 보았기 때문이다.

‘맞-’이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마주’ 또는 ‘서로 엇비슷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인 경우의 단어로는 ‘맞대다’, ‘맞서다’, ‘맞상대하다’ 등을 들 수 있다. “맞두드리며”의 경우에도 파생어로 보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아직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교과서의 “맞두드리며”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기 전에는 단행본 전후의 표기처럼 “맞두드리며”로 표기해야 옳다고 본다.

한편 이와는 달리 띄어쓰기는 올바르나 의미가 모호해진 띄어쓰기도 있다. 이는 위기에 속한 ㉑에서 발견된다.²⁴⁾ 즉 ㉑에서 송 영감이 미음 사발을 앵두나뭇집 할머니에게로 “떠밀치고”라는 표현이 있는 최초본, 단행본, 선집본과 달리 “떼밀치고”는 1~3차 전집본에서, “떼 밀치고”는 교과서본에서 발견된다. 세계 떠밀다는 뜻의 “떠밀치고”와 달리 “떼 밀치고”는 ‘떼다’와 ‘밀치다’라는 두 동사가 마치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인 것처럼 띄어쓰기되어 있다.

그런데 이 표기는, 남의 몸이나 어떤 물체 따위를 힘을 주어 밀다는 뜻의 ‘떼밀다’에 강조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치’가 붙은 것으로 보아 교과서본에서와 달리 한 단어로서 붙여써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아직 하나의 단어로 등재해 놓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볼 때 교과서본 표기는

24) 텍스트는 앞의 예시문 참조.

띄어쓰기에 관한 한 올바르다고 할 수 있으나 의미의 모호함은 여전히 남는다.²⁵⁾

㉘ 그냥 감은 송영감의 눈에서 다시 썩은 물 같은 그러나 뜨거운 새 눈물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러는데 어디선가 애의 쿨적쿨적 우는 소리가 들리는듯 했다. 눈을 떴다. 아무도 있을 리 없었다. 지어 놓은 독이라도 한 개 있었으면 좋겠다. 순간 땀막속 전체만한 공허가 송영감의 파리한 가슴을 억눌렀다. **온몸이 자즈라들고 차옴에 송영감은 느꼈다.**(20)

-> 그냥 감은 송 영감의 눈에서 다시 썩은 물 같은, 그러나 뜨거운 새 눈물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러는데 어디선가 애의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눈을 떴다. 아무도 있을 리 없었다. 지어 놓은 독이라도 한 개 있었으면 싶었다. 순간 땀막 속 전체만 한 공허가 송 영감의 파리한 가슴을 억눌렀다. **온몸이 오프라들고 차옴을 송 영감은 느꼈다.**(96-97)

결말에 속하는 ㉘에서 최초본의 “온 몸이 ~ 차옴에 송영감은 느꼈다.”가, 단행본과 선집본의 “온 몸이 ~ 차 옴을 송영감은 느꼈다.”로, 1~3차 전집본

25) ㉘ 그리다 독들을 가마에 넣을 때 가서는 자신 가마속까지 들어가, 전에는 될수록 독이 여러개 들어가도록만 힘쓰던 것을 **크기 같은 독**이 아궁지에서 같은 거리에 나란히 놓이게만 힘썼다. 마치 누구의 독이 잘 지어졌다 내기라도 해보려는 듯이.(17) -> 독들을 가마에 넣을 때가 되었다. 송 영감 자신이 가마 속까지 들어가, 전에는 되도록 독이 여러 개 들어가도록만 힘쓰던 것을 **이번에는 도망간 조수와 자기의 크기 같은 독**이 되도록 아궁이에서 같은 거리에 나란히 놓이게만 힘썼다. 마치 누구의 독이 잘 지어졌다 내기라도 해보려는 듯이.(94-95)

의미의 모호함은 절 단위의 개작에서도 발견된다. 절정에 속하는 단락인 ㉘에서 최초본과 교과서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최초본이 보여주는 의미의 모호함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최초본에서의 “크기 같은 독” 앞에 “이번에는 도망간 조수와 자기의”라는 서술이 삽입됨으로써 제작된 독의 두 주체간 대결의식이 분명해 졌다. 이는 단행본과 선집본에서 “크기 같은 독” 앞에 “오늘은 어쩐지 도망간 조수와 자기의”라는 서술이 가지는 필연적이지 않은 대결의식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최초본보다는 단행본과 선집본이, 단행본과 선집본보다는 1차 전집본부터 교과서본까지의 서술이 의미상 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행본부터 교과서본까지 송 영감이 자신의 독을 조수의 독과 나란히 놓아 독 짓는 솜씨를 비교해 보고자 하는 장면에서 “도망간 조수와 자기의 크기 같은 독”이라는 표현은 작가의 서술이 불분명함을 나타낸다. 교과서본을 두고 말할 때 양자가 만든 독 중에서 크기가 같은 독끼리의 경쟁이라면 “도망간 조수와 자기의, 크기가 같은 독” 즉 ‘도망 간 조수와 자기가 만든 독 중에서 크기가 같은 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도망간 조수와 자기의 크기 같은”이라는 관계관형절은 이처럼 의미가 불분명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는 작가의 서술상 오류라 할 것이다.

과 교과서본의 “온몸이 ~ 차음을 송영감은 느꼈다.”로 개작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교과서본의 “차음을”은 의미의 혼란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는 목적어의 주어를 바로 앞 문장에 있는 “공허가”로 볼 때 그러하다.

이 같은 명사절은 후술 문장들에 나타나 있듯, 송 영감이 독가마에서 몸을 녹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확실히 호응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차음을”은, 생략되어 있으나 “온몸이”를 주어로 한 ‘차가워 움을’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교과서본의 “차음을”은 비록 틀린 표기가 아니지만, ‘차가워 움’이라는 의미의 명확성을 위해서라도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띄어 쓸 것이 요구된다.

『독짓는 늪은이』의 개작과 관련 표기상 눈에 띄는 차이점은 띄어쓰기이다. 이와 관련 ㉘는 최초본에서의 붙여쓰기가 교과서본에서는 띄어쓰기의 형태로 표기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시된 지문만 놓고 볼 때 붙여쓰기 된 최초본 텍스트는 교과서본 텍스트에서 모두 9군데 띄어쓰기 된 것임을 알 수 있다.²⁶⁾

2.2.2. 쉼표의 사용

㉔ 그리고, 자기가 집중 잡히지 않는 병으로 늪기 때문에 조수가 이 가을로 마지막 가마에 넣으려고 거의 혼자서 지어놓다시피 한, 중용 통용 반응 멧새기 같은 크고 작은 독들이 구월 보름 가까운 달빛에 마치 하나하나 도망간 조수의 그림자같이나 느껴졌을 때, 송영감은 벌떡 일어나 부채방망이를 들어 모주리 깨부수고 싶은 충동을 받았으나, 다음 순간, 송영감은 내일부터라도 자기도 독을 지어 한가마 독을 채워 구워내야 시제 자기네 부자가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미치면서는 정말 그러는 수밖에 없다고 지긋이 무거운 눈을 감아버린다.(13)

-> 송 영감 자신이 집중 잡히지 않는 병으로 앓아누웠기 때문에 조수가 이 가을로 마지막 가마에 넣으려고 거의 혼자서 지어놓다시피 한 중용 통용 반응 멧새기 같은 크고 작은 독들이 구월 보름 가까운 달빛에 마치 하나하

26) 이 항과 관련해서는 1949년 정부에 의해 제정된 『한글 띄어쓰기』와 『교정 편람(1964.10.)』 및 『한글 전용 편람(1969.4.)』과 『한글 맞춤법(1988)』의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텍스트만을 비교하려는 본고의, 후속 과제로서만 의의를 지닌다.

나 도망간 조수의 그림자같이 느껴졌을 때, 송 영감은 벌떡 일어나 부채 방망이를 들어 모조리 깨부수고 싶은 충동을 받았으나, 다음 순간, 내일부터라도 자기가 독을 지어 한가마 채워 가지고 구워 내야 당장 자기네 부자가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면서는, 정말 그러는 수밖에 없다고 지그시 무거운 눈을 감아 버렸다.(90)

발단의 마지막 단락인 ㉔는 개작시 띄어쓰기 못지않게 쉼표의 사용 여부가 고려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예시문에서 최초본은 모두 5개의 쉼표가 교과서본은 3개의 쉼표가 발견된다. 그런데 단행본은 모두 8개, 선집본은 7개, 1차 전집본은 5개, 2~3차 전집본은 3개로서 최초본보다 과도하게 찍혔던 단행본에서의 쉼표가 이후 점차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쉼표의 사용이 소설의 보여주기 수법인 직접화법으로서의 대화 양식을 지양하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의 ㉔에서²⁷⁾ 최초본은 6개의 쉼표가 교과서본 또한 6개의 쉼표가 사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본 다음의 단행본에서는 모두 11개의 쉼표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쉼표의 사용은 이처럼 증가 또는 감소를 하면서 개작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쉼표의 사용은 단행본(240)의 “웬 거냐고 하니까, 애가,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에서 보듯 대화양식상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표현하려는 데서 오는 다소 불가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직접화법이라면 “웬 거냐?”와 “앵두나무집할머니가 주었어요.”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가능했을 것이지만 이 표현의 간접화법시 발화자 제시라든가 간접인용격조사 사용 등이 불가피하였고 쉼표는 이 같은 제시와 사용을 좀 더 분명히 하려는 데서 오는 서술자의 의지였다고 할 수 있다.

2.2.3. 시제

앞의 ㉕에서 최초본과 교과서본은 시제 표현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²⁸⁾ 즉 전자의 “언짚다, 끌어안는다, 차다, 껴안는다”와 같이 현재시제 선어

27) 텍스트는 앞의 예시문 참조.

말 어미 등이 후자에서는 “언짢았다, 끌어안았다, 찼다, 껴안았다”와 같이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로 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제 표현에 있어 현재형이 과거형으로 개작된 것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는 예컨대 ㉑에서 최초본 첫 문장의 서술어인 “언짢다”가 단행본에서는 원형 그대로, 선집본에서는 “언짢았다”로, 1차 전집본에서는 다시 “언짢다”로, 2차 전집본 이후에는 “언짢았다”로 개작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시제상 현재형과 과거형을 넘나들면서 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㉒에서 최초본의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와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했다.”에서 보듯 과거형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행본과 선집본 및 1차 전집본에서 “~놓는다.”와 “~한다.”처럼 현재형으로, 2차 전집본 이후에는 “~놓았다.”와 “~한다.”처럼 과거형과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제와 관련, 개작은 이처럼 과거형 -> 현재형 -> 과거형, 과거형 -> 현재형 -> 현재형의 경로를 밟기도 하였다.

특히 전자는 ㉓에서 보는 것처럼 최초본에서 “말았다”, “시작했다”와 같이 과거형 표현이 단행본에서는 “만다”, “시작한다”와 같이 현재형으로 그리고 다시 선집본과 교과서본에서는 “말았다”, “시작했다”와 같이 과거형으로 표현된다. 이는 과거형 -> 현재형 -> 과거형의 경로를 밟은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황순원은 『독짓는 늙은이』의 개작과 관련 특히 시제 표현에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⁹⁾

28) 이하 분석과 관련된 ㉑, ㉒, ㉓ 예문은 앞에서 예시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분석만을 다루었음을 밝혀 둔다.

29) ㉑ 그러나 하루는 송영감은 독말리기 좋은 날을 가려 중시 한가마가 차지 못하는 독들을 밖으로 내게 하고야 말았다. 지어진 독만으로도 한가마 구어내리라는 생각에서.(17) -> 하루는 송영감이 날씨를 가려 중시 한가마가 차지 못하는 독들을 땡손이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내고야 말았다. 지어진 독만으로도 한 가마 구워 내리라는 생각이었다.(94) / ㉒ 결불농기를 시작한다. 긴 독가마 양옆으로 뚫린 결창구멍으로 나무를 넣는 것이다.(18) -> 결불농기를 시작했다. 독가마 양옆으로 뚫은 결 창 구멍으로 나무를 넣는 것이다.(95) / ㉓ 문득 눈앞에 독가마가 떠올라서다. 그러자 송영감은 그리로 가자는 생각이 불현듯 일었다. 거기에만 가면 몸이 녹여지리라. 송 영감은 기는 걸음으로 뚝막을 나섰다.(20) -> 그러는 송 영감의 눈앞에 독 가마가 떠올랐다. 그러자 송 영감은 그리로 가리라는 생각이 불현듯 일었다. 거기에만 가면 몸이 녹여지리라. 송 영감은 기는 걸음으로 뚝막을 나섰다.(97)

절정에 속하는 ㉑과 ㉒, 결말에 속하는 ㉓는 최초본이 교과서본에서 과거시제화한 것을 보여준다. 먼저 ㉑은 최초본에서 “한가마 구어내리라는 생각에서.”를 교과서본에서 “한 가마 구워내리라는 생각이었다.”로의 개작 양태로 보여준다. 이 양태는 2~3차 전집본과 동일한 것

㉞ 오늘은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반쯤 지어지면 독안에 **매달아놓는** 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사십년래없이 숯내를 다 먹는듯 했다.(14)

-> 오늘도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안에 **매달아놓은** 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91)

시제와 관련된 것으로 전개에 속하는 ㉞는 개작이 오히려 비문을 만들게 된 경우이다.³⁰⁾ ㉞와 관련 먼저 송 영감의 독 짓기는 오랜 기간 숙련되어 온 것으로 숯불을 반쯤 지어진 독 안에 넣는 일 또한 수없이 반복되어져 온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초본에서 1차 전집본까지 “매달아놓는” 또는 “매달아 놓는”이라 표현되었던 것이 2차 전집본 이후 교과서본에 이르기까지 “매달아놓은” 또는 “매달아 놓은”으로 표기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독 안에 “매달아놓는”은, ‘독 안에 매달아 놓곤 하는’의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교과서본의 “매달아놓은”은 바로 앞에 서술된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과 전혀 호응이 되지 않는다. “매달아놓은”은 ‘독이 한 반쯤 지어졌을 때’

로 외적조절화자의 과거시제에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㉞ 또한 선집본과 2차 전집본에서부터 그러하다. 그리고 ㉞에서 최초본 및 교과서본과 관련, “떠올라서다”->“떠올랐다”, “인다”->“일었다”에서 보듯 현재시제는 모두 과거시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또한 단행본이 과거시제인 “떠올랐다”와 현재시제인 “인다”를 혼용하고 있는 과정을 경유하여 개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0) ㉞ 송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잦았다**. 흠 이기던 뺨손이가 저래서는 도무지 한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한노인에게 내년에 마자 지어 첫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짓기를 그만두려고 들지는 않았다.(14-15) -> 송 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흠 이기던 뺨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 영감에게 내년에 마자 지어 첫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 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91)

이와 관련, 위기의 앞 단락에 속하는 ㉞는 개작의 불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최초본에서 “송영감은 ~ 도수가 잦았다.”가 단행본과 선집본 및 2, 3차 전집본에서 “송영감은 ~ 도수가 많았다.”, 1차 전집본에서 “송영감은 ~ 도수가 많았다.”, 교과서본에서 “송 영감은 ~ 도수가 많았다.”로 개작된다며 띄어쓰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잦았다’가 ‘많다’로 개작된 것은 개작을 위한 개작으로 보인다.

와 호응이 된다. 즉 교과서본의 문장은 문장 내에서 시제가 불일치한 비문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비문이 작가의 개작 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학습 독자를 위해 각주란에서 퇴고된 문장으로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2.3. 어휘적 측면

이 항에서는 개작 과정에서 삭제된 어휘들을 살펴 본다. 이 어휘들은 우리 말 어휘 확대의 차원에서 존속시켰어도 좋은 말들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소설은 어휘생산의 보고라는 점에서 비록 표준어는 아니지만 우리말화 함으로써 어휘 확대에 기여했으면 하는 어휘들도 있다.

㉔ 다음날 송영감이 정신이 든 때는 자기네 뜰막 속에 와 누워 있었다. 옆에서 작은 몸을 오스라치고 **쿨적거리던** 애가 아버지 정신 든것을 보고 더 크게 **쿨적쿨적 울기** 시작했다. 송영감이 저도모르게 애보고,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했다. 그러나 송영감은 또 속으로는지금 자기는 죽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었다.(18-19)

-> 다음 날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자기네 뜰막 안에 누어져 있었다. 옆에서 작은 몸을 오그리고 **홀쩍거리던** 애가 아버지가 정신 든 것을 보고 더 크게 **홀쩍거리기** 시작했다. 송 영감이 저도 모르게 애보고,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했다. 그러나 송 영감은 또 속으로는, 지금 자기는 죽어가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었다.(96)

『독짓는 늙은이』는 먼저 절정의 마지막 단락인 ㉔에서 보듯 최초본에서, “쿨적거리던”, “쿨적쿨적 울기~”가 (1차 전집본 이후부터 나타난 바) 교과서본에서 “홀쩍거리던”, “홀쩍거리기 ~”로 변개³¹⁾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㉔에서 보았듯 “쿨적쿨적 울기~”와 “쿨적이는”이 교과서본에서 “홀쩍홀적 울기~”와 “홀쩍이는”으로 바뀐 것과 일맥상통한다.

‘쿨적거리다’의 센말로 생각되는 ‘홀쩍거리다’³²⁾는 눈물을 조금씩 흘리며

31) 개작의 개념과 관련, ‘수정(修訂)’이라는 표현은 텍스트 간의 우열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아 좀 더 중립적이라 생각되는 이 용어를 사용(각주 13) 참조하였다.

작은 소리로 자꾸 울다 또는 걸죽하고 더러운 액체가 좁은 틈으로 스며 올라 고이는 소리가 잇따라 나다라는 뜻이다. 이에 반해 바뀐 어휘인 ‘홀쩍거리다’는 액체 따위를 남김없이 자꾸 들이마시다 또는 콧물을 자꾸 들이마시다 및 콧물을 들이마시며 자꾸 흐느껴 울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바뀐 어휘는 최초본의 어휘가 내포하고 있는 강한 ‘콧물 소리’를 잘 형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㉔ 송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러서 였다. 뺨손이도 흙 몇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 **쫓크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어머니를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줄로만 아직 아는가부다.(14)

->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뺨손이도 흙 몇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 **쫓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90)

전개에 속하는 단락인 ㉔는 살려 써도 좋을 우리말을 개작 과정에서 삭제시킨 경우이다. 즉 최초본에서 “언제부터인가 ~ 쫓크리고 앉아 있었다.”의 경우로 단행본과 선집본 및 1차 전집본에서 “언제부터인가 ~ 쫓그리고 앉아 있었다.”로, 2, 3차 전집본에서는 “언제부터인가 ~ 쫓그리고 앉아있었다.”로, 이어 교과서본에서는 “언제부터인지 ~ 쫓그리고 앉아 있었다.”로 각각 표기되어 있다.

그러면 최초본에서 표현된 “쫓크리고”는 “쫓그리고”의 오기 또는 오식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쫓크리고”는 팔다리를 오그려 몸을 작게 움츠리고의 뜻으로 “쫓그리고”보다 거센 느낌을 주는 말이다. 변개된 말보다 원어가, 뺨손이의 위축된 심리를 더 잘 표현해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개작시

32)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는 북한어로 명시되어 있다.

표준어를 너무 의식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㉔ 거지들이 초입에 누워 있다가 지금 기어 들어오는 게 누구이라는 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우무적거려** 자리를 내주었다. 송영감은 한옆에 몸을 쓸어트렸다. 우선 몸이 녹는 듯해 좋았다. 거기 에는 여럿이 몸기운까지 있어서.(20)

-> 거지들이 초입에 누워 있다가 지금 기어 들어오는 게 누구라는 것도 알려하지 않고 **구무력거려** 자리를 내주었다. 송 영감은 한옆에 몸을 쓰러뜨렸다. 우선 몸이 녹는 듯해 좋았다.(97)

결말에 속하는 단락인 ㉔에서 최초본부터 선집본까지의 “우무적거려”라는 표현은 1~3차 전집본과 교과서본에서 “구무력거려”로 표기된다. 큰 벌레 따위가 매우 좁스럽고 굼뜨게 움직이는 모양을 뜻하는 “우무적거려”와 매우 천천히 자꾸 움직이는 모양 등을 뜻하는 “구무적거려” 중, 전자의 단어 또한 살려 써도 좋은 우리말이라 할 것이다.

이는 ㉔ 장면을 고찰할 때 더욱 적합한 단어로 생각된다. ㉔는 집도 절도 없는 거지들이 추위를 면하기 위해 가마 초입에 몰려 있다가 송 영감에게 자리를 내주는 장면이다. 송 영감은 인가로 구걸하러 가기에 용이했을 가마터를 근거로 살았을 거지들을 인정스럽게 묵인해 오기는 했지만, 그들과는 엄연히 다른 처지였다. 그러나 이제 거지들과 동류가 되고 만 것이다. 송 영감의 비참한 처지를 형용함에 있어 비록 우회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거지들을 마치 ‘큰 벌레’처럼 형용해 두는 것도 좋았을 것이다.

㉕ **처음에 스름스름 때다가 차차 세계 때기 시작하여** 서너 시간 때면, 처음에 썩하얗던 독들이 흑색으로 변한다. 거기서 또 너더땃 시간 때면, 독들을 다시 처음의 썩하얗던 대로 되고, 다음에 적색으로 뵈다가 이번에는 아주 새말갈게 되는게, 그것은 마치 쇳문이 녹는듯, 하늘의 해를 쳐다보는듯이 된다. 그리고 하늘에는 정말 다음날 맑은 하늘 해빛이 빛나고 있었다.(17-18)

-> **처음에 슬슬 때다가 점점 세계 때기 시작하여** 서너 시간 지나면 하얗던

독들이 흑색으로 변한다. 거기서 또 너더땃 시간만 때면 독들은 다시 처음의 하얗던 대로 되고, 다음에 적색으로 됐다가 이번에는 아주 셋말장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쇠가 녹는 듯, 하늘의 햇빛을 쳐다보는 듯이 된다. 정말 다음날 하늘에는 맑은 햇빛이 빛나고 있었다.(95)

절정에 속하는 ㉔ 또한 살려 써도 좋을 우리말을 개작과정에서 삭제시킨 경우이다. 즉 최초본에서 선집본까지 “처음에 스름스름 때가 차차 세계 때기 시작하여”가 1차 전집본 이후 교과서본까지 “처음에 슬슬 때가 점점 세계 때기 시작하여”로 변경되어 있는데, 가마에의 불질과 관련, 눈에 뜨이지 않게 조금씩 움직이는 모양인 “스름스름”이 남이 모르게 슬그머니 행동하는 모양 등을 뜻하는 “슬슬”보다 의미적 연관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자는 지역성과도 관련이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³³⁾

㉕ 이튿날 송영감은 애를 시켜 앵두나무집할머니를 오라 했다. 앵두나무집할머니가 오자 송영감은 애더러 놀러 나가라고 하며 **위심히** 애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마치 애의 얼굴을 잊이나 않으려는 듯이.(19)

-> 이튿날 송 영감은 애를 시켜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오게 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오자 송 영감은 애더러 놀러 나가라고 하며 **유심히** 애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마치 애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는 듯이.(96)

결말의 첫 단락인 ㉖는 매우 심하게를 뜻하는 최초본의 “위심히”가 단행본 이후 텍스트들에서 속뜻이 있게, 주의가 깊게 등을 뜻하는 “유심히”로 바뀐 것을 보여준다.³⁴⁾ 두 어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33) 이는 ㉔에서 ‘장거리’를 의미하는 ‘장감’과 같은 경우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북한어로 명시하였다.

34) ㉕ 그러나 앵두나무집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와 저렇게 너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을 때, 감은 송영감의 눈에서는 절로 눈물이 흘러내림을 어찌할 수 없었다. 앵두나무집할머니는 억해 오는 목소리를 겨우 참고, 저것 보라고 벌서 눈에서는 썩은 물이 나온다고 하고는, 그러지 않아도 앵두나무집할머니의 손을 잡은채 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엄을 잃는** 애의 손을 끌고 그곳을 떠났다.(19) -> 그러나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와, 저렇게 너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을 때, 송 영감은 절로 눈물이 흘러내림을 어찌할 수 없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억해 오는 목소리를 겨우 참고, 저것 보라고 벌서 눈에서 썩은 물이 나온다고 하고는, 그러지 않아도 앵두나무집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생각을 잃는**

다. 즉 ‘위심(爲甚)히’라는 어휘에서는 송 영감과 당손이가 부자 관계라는 것이 확연히 감지되지만, ‘유심(有心)히’라는 어휘에서는 송 영감과 당손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인 것처럼 감지된다. 다시 말해 송 영감의 당손이에 대한 거리가 혈연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북한이라는 지역성 반영의 어휘들을 포함하는 이상의 어휘들은 개작 시 굳이 표준어로 바꾸지 않고 존속시켰더라도 무방한 어휘들로 「독짓는 늙은이」를 오히려 생동감있게 형상화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독짓는 늙은이」는 어휘생산의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이는 우선 위에서 예시된 절정의 마지막 단락인 ㉔를 통해서 발견된다. 즉 최초본부터 선집본까지의 “옆에서 적은 몸을 오스라치고”가 1~3차 전집본과 교과서본에서는 “옆에서 작은 몸을 오그리고”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오스라치고”를 “오그리고”의 오기나 오식으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오스라치고”는 송 영감의 줄도에 따른 당손의 놀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놀라서 오그린’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 단어를 ‘오그리다’와 ‘소스라치다’라는 두 동사가 합해진 것으로 본다면, 우리말 어휘 확대의 차원에서 새롭게 살려 써봄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 결말에 속하는 ㉘에서³⁵⁾ 최초본부터 선집본까지의 “온 몸이 자즈라 들고”가 1~3차 전집본과 교과서본의 “온몸이 오므라들고”로의 변경 시 “자즈라 들고”를 삭제하기보다는 ‘자지러지다’와 ‘오므라들다’의 두 동사가 합해진 것으로 보아, “오스라치고”처럼 새롭게 살려 써봄직하다 할 것이다.³⁶⁾

애의 손을 끌고 그곳을 나왔다.(96)

결말에 속하는 단락인 ㉘는 교과서본이 최초본에 비해 좀 더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염을 앓는”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생각을 앓는”으로 변경된 데서도 드러난다.

35) 텍스트는 앞의 예시문 참조.

36) ㉘ 앵두나무집할머니와 단 둘이 되자 송영감은 눈을 감으며 요전에 말하던 자리에 아직 애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앵두나무집할머니는 있다고 했다. 여기서 한 이삼십 리 잘 된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느냐고 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앵두나무집할머니는 치마속에서 지전 몇장을 꺼내어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송영감의 손에 쥐어주며, 아무때나 애를 다려오게 되면 주라고 해서 마타 두었던 거라고 했다.(19) -> 앵두나무집 할머니와 단둘이 되자 송 영감은 눈을 감으며, 요전에 말하던 자리에 아직 애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된다고 했다. 얼마나 먼곳이냐고 했다. 여기서 한 이삼십 리 잘 된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느냐고 했다.

3. 결론

최초본으로부터 개작이 되어 온 교과서본은 3차 전집본과 별다르지 않다. 이 점, 교과서본은 주로 띄어쓰기의 변화에서 보듯 교과서 편찬자의 의도 반영이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 수준에서 최소 개입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과서본이 3차 전집본에서도 노정되어진 것이지만 중앙집권화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표준어 구사에만 너무 치중한 작가의 개작의식의 소산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작가의 출생지는 평안남도 대동군이다. 이 출생지를 고려하여 서술 시 지역방언을 풍부하게 살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같은 시기에 쓰여진 「그늘」(『춘추』, 1942.3)과 비교해 보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3차 전집본의 연장선에 있는 교과서본은 이 점에서 최초본에서의 지역성 반영 어휘들이 사라져버린 채로 출판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울러 소설은 우리말 생산의 공장이기도 한데 이 점에서 작가가, 애초 표기하였던 어휘를 그냥 표준어로 바꾸어버린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묘사보다는 서술화의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교과서본이지만 학습독자들에게 해당 표기의 이 같은 이전 표기 등을 제시하여 비교대조케 하는 것 또한 국어의 유지와 생성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활동과 관련, 교과서 수록 소설의 어휘들을 바꾸어서 써보게 하는 것도 소설 수업 절차의 최종 단계인 내면화 단계에서 고려해 볼직하다.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들은 수록 즉시 정전화되고 또 그러한 상태로 학습

당장이라도 데려가지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앵두나못집 할머니는 차마 속에서 지전 몇 장을 꺼내어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송 영감의 손에 쥐여 주며, 아무 때나 앵을 데려오게 되면 주라고 해서 맡아 두었던 것이라고 했다.(96)

‘오스라치다’와 ‘자즈라들다’를 관점에 따라서는 표기상의 오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를 우리말 어휘 확대의 차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는 달리 교과서본 「독짓는 늙은이」에는 변개된 표기가 자칫 오류로 인식될만한 곳도 있다. 이는 결말에 속하는 ㉠에서 최초본부터 3차 전집본까지, 송 영감의 손에 “쥐여주며”라는 표현이 교과서본에서는 송 영감의 손에 “쥐여 주며”로 표기되어 있는 곳에서 그러하다. 즉 “~ 쥐여 주며”의 본용언인 “쥐여”가 ‘쥐어’의 오기나 오식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주며”를 보조용언으로 하는 본용언 “쥐어”는 ‘쥐어’의 사동사로, “쥐여 주며”는 ‘쥐게 하여 주며’라는 뜻이 되는 바 해당 부분의 문장 의미는, 앵두나못집 할머니가 지전들을 송 영감의 손에 쥐게 해 준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는 개작 표기의 오류가 아닌 경우이다.

독자들에게 인식된다. 교과서 수록 텍스트들은 흔히 학습독자들에게 완전무결하고도 흠이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이상적인 독자로서의 교사 스스로가 먼저 교과서 수록 텍스트의 정전화 경향을 지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하겠다.

이하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본고의 결론을 삼고자 한다. 중간본들을 고려하면서 최초본과 교과서본을 비교해 볼 때 첫째, 주인공인 송영감을 중심으로 한 인물간의 관계에 있어 아들 당손이보다 조수와 함께 달아난 아내를 더 중시하려 하였다. 이는 주인공인 송영감의 성격상 전이를 통하여 나타났다. 둘째, 띄어쓰기를 강화하려 하였다. 셋째, 최초본에 비해 단행본에서 과도하게 쓰였던 쉼표가 전집본과 교과서본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쉼표의 사용은 그 자체 직접화법을 간접화법화하려는 데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시제를 일관되게 과거시제로 하려 하였다. 이는 서술자의 이야기 전달 시 내포독자(독자)를 강하게 의식하게 됨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 소설의 기호적 양식에 충실하려 한 것을 말한다. 한편 다섯째, 개작은 표준어 사용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지역방언을 기피하는 쪽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표준어 사용은 『독짓는 늙은이』의 교과서 수록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계층적 지역적 언어를 포괄하는 문학어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여섯째, 『독짓는 늙은이』라는 텍스트는 일종 어휘의 창고이기도 하므로 어휘 확대 차원에서라도 개작에 의해 묻혀 버린 우리말을 최소한 각주에서라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작의 필요성 여부는 작가에 따라 다르다. 황순원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 역사적 사건이 개작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는바 이는 작가적 신념에의 변화와 무관치 않다. 텍스트의 개작 시 조사 하나까지도 인물 형상화를 비롯한 서사전체에 섬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개작은 안이한 창작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독짓는 늙은이』는 부사의 교체나 삽입, 삭제 등도 빈번하게 발견된다. 연구된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교과서본은 적어도 띄어쓰기 등에 있어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차후 교과서 수록 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자료

- 『문예』 제2권 제4호, 문예사, 1950.
『한국현대소설총서 8』, 태영사, 1985.
계용목 편, 『단편사인선집』, 우생출판사, 1955.
김윤식, 김종철, 정호웅, 안혁, 김효정, 『고등학교 문학 I』, 천재교육, 2012.
황순원, 『황순원전집』, 제1권, 창우사, 1964.
황순원, 『황순원문학전집』, 삼중당, 1973.
황순원, 『눈/기러기 -황순원전집1』, 문학과 지성사, 1980.

2. 논저

- 고형진 외, 『고등학교 문학 I』, 천재교육, 2012.
권영민 편,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1100면.
김남석, 「1960년대 후반 문예영화 시나리오의 회상 기법 연구: 「안개」, 「역마」, 「독짓는 늙은이」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3.
김윤식 외 11인, 『고등학교 문학 I 자습서』, 천재교육, 2013.
나경수, 「「독짓는 늙은이」 원형재구」, 『한국언어문학』 제30집, 한국언어문학회, 1992.
박용규, 「황순원 소설의 개작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신희교, 「황순원의 그늘에 나타난 초점화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47집, 한국언어문학회, 2002, 345~362면.
임진영, 「황순원 소설의 변모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S. 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1999.

【국문초록】

이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한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황순원의 『독짓는 늙은이』가 최초본을 포함, 이후 몇몇 중요한 텍스트들로부터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그 양상을 살펴 본 것이다. 개작 양상을 검토함에 있어 본고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두 7개의 판본을 선정하고 이 판본에 실린 텍스트들을 비교 검토하되 특히 중간본들을 고려하면서 최초본과 교과서본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교과서본은 특히 작가의 개작의 지가 아닌, 최소 개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교과서 편찬자의 의도가 반영된 곳에도 유의하였다. 비교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독짓는 늙은이』는 주인공인 송 영감을 중심으로 한 인물간의 관계에 있어 아들 당손이보다 조수와 함께 달아난 아내를 더 중시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인공인 송 영감의 성격상 전이를 통하여 나타났다. 둘째, 띄어쓰기를 강화하려 하였다. 셋째, 최초본에 비해 단행본에서 과도하게 쓰였던 쉼표가 전집본과 교과서본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쉼표의 사용은 그 자체 직접화법을 간접화법화하려는 데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시제를 일관되게 과거시제로 하려 하였다. 이는 서술자의 이야기 전달 시 내포독자(독자)를 강하게 의식하게 됨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 소설의 기호적 양식에 충실하려 한 것을 말한다. 한편 다섯째, 개작은 표준어 사용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지역방언을 기피하는 쪽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표준어 사용은 『독짓는 늙은이』의 교과서 수록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계층적 지역적 언어를 포괄하는 문학어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여섯째, 『독짓는 늙은이』라는 텍스트는 일종 어휘의 창고이기도 하므로 어휘 확대 차원에서라도 개작에 의해 묻혀 버린 우리말을 최소한 각주에서라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작의 필요성 여부는 작가에 따라 다르다. 황순원의 경우 역사적 사건이 개작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는바 이는 작가적 신념에의 변화와 무관치 않다. 텍스트의 개작 시 조사 하나까지도 인물 형상화를 비롯한 서사전체에 섬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개작은 안이한 창작과는 거리

가 먼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독짓는 늙은이』는 부사의 교체나 삼입, 삭제 등도 빈번하게 발견된다. 연구된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교과서본은 적어도 띄어쓰기 등에 있어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차후 교과서 수록 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황순원, 독짓는 늙은이, 개작 양상, 성격의 전이, 띄어쓰기, 삽표, 시제, 방언, 어휘 확대

【Abstracts】

A Study on Adaption of Hwang Sunwon's 「Dogjisneun neulgeuni」

Sin Huigyo

「Dogjisneun neulgeuni」 is Hwang Sunwon's a short story. I compared the work from first text to last text. From first text to last text is all seven. I especially compared first text and textbook text through middle texts. As a result, I discovered the next facts. Firstly, the old man's character-displacement expiscated. The old man's interest is transferred to his wife from his son. And his character becomed nervous. Secondly, textbook text complied with the spacing. Thirdly, in textbook text comma decreased. However textbook text turned direct discourse into indirect discourse using comma. Fourthly, the past tense consistently appeared. That is to say, narrator is strongly conscious of the novel's reader. Fifthly, the standard language is used. That is to say, a regional dialect is avoided by the writer. This is not desirable from a developmant of literary language point of view. Sixthly, for vocabulary study we will show the other text's vocabulary with textbook's vocabulary. This is desirable from a expansion of korean language point of view. Meanwhile management of adverb is frequent at syntex level. Be taken altogether, problem of the spacing is founded in the textbook text. This problem must be corrected by next textbook.

Key words : Hwang Sunwon, Dogjisneun neulgeuni, adaption, character

-displacement, spacing, comma, past tense, regional dialect, developmant of literary language, expansion of korean language

이 논문은 2014년 12월 26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2월 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